

한국전쟁 시기 북한 소설가 한설야의 평화 개념, 1950~1953*

구갑우**

이 연구의 목적은 1949년 소련에 우호적인 국제평화운동에 북한 대표로 참여했던 소설가 한설야의 한국전쟁 시기 평화담론을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전쟁 전야에 한설야는 한반도의 평화를 한반도의 통일과 등치시켰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수사를 사용했지만, 평화에 이르는 길로 폭력적 방법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은 남침 직후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정의했고, 정의의 전쟁과 조국해방전쟁 담론을 동원했다. 한설야는 북한 당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정의를 충실히 수용하면서, 그의 평화담론을 반미담론과 국제연대담론으로 구성했다. 반미담론은 미국과 미군을 “식인종”으로까지 악마화하는 급진적 반미주의였다. 국제연대담론에서는 국제평화운동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국전쟁을 북한식으로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교착상태에 이르자 전쟁의 즉각적 종식을 요구하는 일시적 절대 평화주의자의 모습을 보였다.

주제어: 북한, 한설야, 한국전쟁, 평화담론, 국제평화운동, 세계평화이사회, 반미담론, 국제연대담론

* 익명의 심사자 세 분의 세심하고 유익한 논평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은 2021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년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입니다.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문제 설정

1949년 3월 북한의 평양에서는 ‘평화옹호세계대회 민족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당시 발표된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서”에 따르면, 북한의 31개 “동맹단체들”이 이 대회에 참여해서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를 조직했다.¹⁾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948년 북한정권 수립 이후 최초로 대중운동의 형태로 만들어진 ‘평화운동’ 단체였다. 북한의 소설가이자 정치인인 한설야(韓雪野, 1900~1976)는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서의 첫머리에 이름을 올렸고,²⁾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위원장 직함을 얻었다. 즉, 한설야는 북한 당국이 임명한 ‘평화운동가’였다.³⁾

1949년 초 한설야를 평화운동으로 이끈 계기는, 소련에 우호적인 국제평화운동의 출현이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핵무기가 투하되었을 때, 좌파 진영은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와 핵무기 사용을 긍정했다. 그러나 미국 진영과 소련 진영의 대립인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반핵’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미국의 핵 독점에 대한 좌파 진영의 우려 때문이었다.⁴⁾ 핵물리학자로 프랑스 공산당 당원이었던 줄리오큐리(J.

-
- 1)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서,”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 문헌집』(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238쪽.
 - 2) 선언서에서는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에 참여한 각계각층을, “작가 배우 미술가 과학자 기사 교수 로동자 농민 기업가 상인 종교가 녀성 청년 및 사회활동가”로 호명했다. 선언서에는 총 29명의 ‘지식인’이 대표로 연명했다. 주요 인물로, 노동운동가 박정애, 국어학자 리극로와 홍기문, 소설가 리기영·리태준·김남천, 무용가 최승희, 기독교 목사 김창준 등이 있다.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서,” 242쪽.
 - 3) 김일성은 1949년 2월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참가할 준비를 잘할대 대하여”에서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의 소집과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결성을 요구했다. 『김일성전집 9』(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47~149쪽.

Joliot-Curie)와 분자생물학자로 영국 공산당 당원이었던 버널(J. Bernal)은 ‘세계과학자연맹(The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s)’을 매개로,⁵⁾ 공산주의자가 주도하지만 비공산주의자도 참여하는 ‘전선조직(front organization)’의 형태로 반핵 평화운동을 조직하고자 했다. 첫 시작이 1948년 8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Wroclaw)에서 열린 ‘세계평화지식인대회(World Congress of Intellectuals for Peace)’였다. 이 대회에서 결성된 ‘평화지식인국제조정사무소(International Co-ordinating Office of Intellectuals for Peace)’가 ‘국제민주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과 함께 1949년 2월 국제기구의 건설을 목표로 하는 ‘세계평화대회’의 소집을 요구했다.⁶⁾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각

4) L. Wittner, *One World or None: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Through 1953*(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171~173.

5) 1946년 7월에 결성된 세계과학자연맹은, 1918년 영국에서 노동조합으로 만들어진 National Union of Scientific Workers를 모태로 했다. 1947년 세계과학자연맹의 의장은 줄리오큐리(1900~1958)였다. 당시의 소개로는 J. G. Crowther, “The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s,” *Nature*, 160(November 1947), pp.628~629. 줄리오큐리는 아내 이레느(1897~1956)와 함께 인공방사능의 발견으로 1935년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1948년 프랑스 최초 원자로인 ZOE도 그의 지도력하에서 만들어졌다. 1942년 프랑스 공산당에 참여한 줄리오큐리는 평화운동의 지도자로 북한 매체에 자주 인용되는 핵물리학자였다. 1958년 8월 그가 사망했을 때, 북한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이름으로 프랑스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조전을 보낼 정도였다(『로동신문』, 1958년 8월 17일). 이레느 줄리오큐리도 북한 매체에서 과학자이며 평화 옹호 투사로 묘사된다. 『천리마』, 9월호(2011). 『천리마』 기사에서는 줄리오큐리 부부가 발견한 인공방사능을 원자탄 제작의 기술로 평가하고 있다. 평화운동가 줄리오큐리가 한국전쟁 기간 “조선에서의 즉시적인 전쟁중식”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천리마』 기사에 나온다.

6) 세계평화대회의 소집을 알리는 전단의 제목은, “For a world Congress of peace”였다. “모든 민주적 조직에게, 모든 평화의 옹호자(defenders)에게” 보내는 것이

국별로 민족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북한에서 조직된 단체가 평화옹호전 국민족위원회(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였다.

1949년 4월 한설야는 박정애, 김창준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평화대회에 참가했다. 줄리오큐리는 파리 세계평화대회를 미국 주도의 집단방위기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만드는 조약 서명자에 대한 인민의 대응으로 정의했다.⁷⁾ 1949년 3월의 평화옹호전국 연합대회 선언과 파리 세계평화대회에서 한 한설야 연설의 요지는, 1947년 9월 공산당들의 국제조직인 코민포름(Cominform) 창립을 위한 회의에서 스탈린(Stalin) 다음의 소련공산당 지도자였던 즈다노프(Zhdanov)가 한 국제 정세 보고서에서 주조한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적 반민주 진영' 대 소련 주도의 '반제국주의적 민주 진영'의 대립구도의 반복이었다.⁸⁾ 달리 표현하면,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는 미국 주도의

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 소련,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독일, 에이레, 스페인, 인도, 칠레, 브라질, 중국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에서는 줄리오큐리 부부, 영국에서는 버널의 이름이 보인다. 칠레 대표는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임에도 중국(China) 대표는 프랑스에 유학했던 중국공산당 당원으로 국제민주여성연맹에서 활동하던 채창(蔡暢, Tsai Chang)이었다. 채창에 대해 조사를 해 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생 김림삼 군께 감사드린다. 세계평화대회 소집을 알리는 전단의 pdf는 W. E. B. Du Bois Papers (MS 312) Special Collections and University Archiv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Libraries. <https://credo.library.umass.edu/view/full/mums312-b126-i237>(검색일: 2023년 8월 8일).

7) Wittner, *One World or None*, p.178.

8) A. Zhdanov, "The 'Cold War' and the Cominform,"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I(New York: Random House, 1960), 155~160쪽. 사실 이 진영 대립의 구도는, 1946년 3월 발생한 그리스 내전을 소련 진영의 확대 기도로 인식한 미국이 1947년 3월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전쟁 진영’ 대 평화 애호 국가 소련 주도의 ‘평화 진영’이란 이항대립이 당시 소련에 우호적인 평화운동이 공유하는 생각이었다.⁹⁾ 한설야는 이 국제 정세 인식과 더불어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를, “조국의 국토완정과 완전자주독립”을 의미하는 통일로 정의했다.¹⁰⁾

1949년 6월 세계평화대회 참석 후 귀환 보고에서 한설야는 평화에 이르는 방법으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와 미군이 “기르는 개들”로 희롱한 남한 정권의 축출을 제시했다.¹¹⁾ 물론 파리대회 보

연설을 통해 그리스에 대한 지원을 밝힌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에 대한 소련의 담론적 대응이었다. 결국 이차대전의 와중에 반파시즘 연합전선을 형성했던 미국과 소련이 각각의 진영을 구성하여 대립하는 냉전의 길을 걷게 된다. 노경덕, “스탈린 외교를 바라보는 한 시각, 1927~1953,” 『역사비평』, 제121(2017), 391~392쪽.

9) 1949년 6월 북한의 청년단체인 조선민주청년동맹의 대중용 선전자료의 제목은 “전쟁의 길과 평화의 길”이다. 민청강연자료, 『전쟁의 길과 평화의 길』(평양: 청년생활사, 1949).

10) 한설야, “한설야씨의 보고,”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13쪽.

11) 한설야, “평화옹호세계대회 참가 귀환 보고,” 『로동신문』, 1949년 6월 17일. 그러나 한설야가 미군의 철수를 요구했을 때, 미군은 철수하고 있었다. 1949년 6월 30일 미군은 철수를 완료했다. 1947년 미군과 소련군의 동시 철수를 제안한 소련은, 1948년 12월 소련군을 철수했다. 소련군과 달리 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남한을 식민지화, 군사기지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한설야의 보고와 비슷한 시점에 발간된 조선로동당 이론지 『근로자』에도 보인다[승민,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반동파의 최후발악,” 『근로자』, 제11호(1949), 31~45쪽. 그러나 한국전쟁 전야에 한반도의 남북에는 수백 명 대의 미군과 소련의 군사고문단이 주둔하고 있었다.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군사』, 제79호(2011), 111~149쪽; 심현용,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 연구,” 『동북아연구』, 제29권 2호(2014), 261~289쪽]. 김일성도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 *l'Humanité*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쟁이 미국 군사고문단의 지도에 따라 한국정부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입장을 취했다[“『유마니테』 신문 기자 마니앙 씨의 질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성 장군의 대답,” 『근로

고에서, “민주자주독립국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요구하지 않”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¹²⁾ 즉, 1949년 즈음 한설야는 평화적 방법으로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담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설야의 평화적 통일은 남한 내 반정부 무장투쟁인 “빨찌산투쟁”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한설야에게 “빨찌산투쟁”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만들어 내는 한 동력이었다.¹³⁾ 한국전쟁 전날인 1950년 6월 24일

자』, 제14호(1950), 12~15쪽].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6일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는 북침을 주장하는 “한국에서 미국의 꼭두각시들에 의한 중대한 전쟁 도발, 인민 공화국의 군대가 남한군의 침략에 의기양양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당시 프랑스 언론들은 프랑스 공산당 기관지의 북침 주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즉각 게재했다. 이 프랑스 언론 기사들의 번역본은 정명환 외,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서울: 민음사, 2004)에 부록으로 실려 있다. 최초 미국 내에서 남한 주둔 미군의 철수는 1947년 5월 전쟁 부 장관이 제안했다. 한국전쟁 기간인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1949년 6월 주한미군의 철수가 군에 문의하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공화당 후보 아이젠하워(D. Eisenhower)의 주장에 대해 당시 대통령이던 트루먼(H. Truman)은, 1947년 9월 국무부는 합동참모본부에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남한에 군대와 기지를 유지하는 것에 미국은 거의 전략적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만약 소련이 일본에 대한 주요 공세를 위해 남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철군을 권고한다는 것이 합동참모본부의 의견이었다”[<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statement-the-president-the-decision-withdraw-us-forces-from-korea-1947-1949>(검색일: 2023년 6월 22일)].

- 12) 한설야, “한설야씨의 보고,” 12쪽. 북한이 전쟁을 통해 통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조건이 한국전쟁 전야에 만들어졌다. 첫째,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이었다. 둘째,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었다. 셋째, 1950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의 동맹조약 체결이었다.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D. Acheson)이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남한을 뺀 것도 북한의 오인에 한몫했다.
- 13) 한설야, “평화적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평화옹호자 대회에서 진술한 한설야씨의

에 북한 매체에 게재된 글에서 한설야는 1950년 6월 1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평화적 조국통일추진에 관하여”란 결정서를 언급하면서, 남한의 작가와 예술인들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묻기도 했다.¹⁴⁾ 이 결정서는, 한설야가 파리대회에서 귀환한 직후 결성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채택한 1950년 6월 7일의 평화통일을 위한 호소문의 연장이었다.

‘평화운동가’ 한설야의 평화담론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평화적 방법이 아닌 전쟁을 통한 통일을 시도하면서 모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남한 내부의 빨치산 투쟁을 긍정했기에 한설야가 폭력적 방법에 의한 평화와 통일을 배제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북한의 침략은 한설야의 평화담론에 균열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 북한 당국은 최초 한국전쟁을 한국이 촉발한 ‘내전(civil war)’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 곧 ‘정의의 전쟁(just war)’과 ‘조국해방전쟁’이란 수사로 가장 폭력적인 방식인 전쟁을 통한 평화와 통일을 정당화했다.¹⁵⁾ 한설야는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정의와 수사를 충실히 견지하면서, 한국전쟁(1950~1953) 기간 동안 반미(反美)담론과 국제연대담론을 만들었다. 한국 ‘전쟁’ 기간 동안, 국제평화운동과 접점을 유지하고 있던 북한 판 ‘평화운동가’ 한설야에게 ‘평화’가 무엇이었는가를 묻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즉, 한설야의 말을 매개로 한국전쟁 기간 북한이 국제평

보고,” 『로동신문』, 1950년 2월 21일.

14) 한설야,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이여 당신들은 누구의 편에 서려하는가?” 『로동신문』, 1950년 6월 24일.

15) 중국의 수나라에 맞선 고구려의 전쟁, 거란에 맞선 고려인의 전쟁,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전쟁에 비유되는 조국해방전쟁이었다. 박영성,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영웅적 조선 인민군,” 『근로자』, 제13호 (1950), 23~34쪽.

화운동에 발신하고자 했던 평화 개념을 추적하고자 한다. 주요 자료는, 학계에서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한국전쟁 기간 한설야의 이름으로 『로동신문』에 등장한 평화와 전쟁에 관한 글들이다.¹⁶⁾

-
- 16) 한 심사자의 지적처럼, 국내 청중을 대상으로 한 『로동신문』에 게재된 한설야의 글과 국제 청중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한설야의 발표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설야의 두 종류의 글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평화운동 회의록 검토를 통해 한글화되지 않은 한설야의 발언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 작업을 통해 국제평화운동에서 생산된 한국전쟁 담론이 한설야의 평화담론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현재 스위스모어 대학(Swarthmore College) 도서관에 1949~1996년 기간 동안의 ‘세계평화이사회 기록모음(World Peace Council Collected Records)’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https://archives.tricolib.brynmaur.edu/resources/scpc-cdg-b-finland-world_peace_council(검색일: 2023년 8월 8일)]. 외국어로 된 한설야 글에 대한 조사는 다음 연구로 돌린다. 지금까지의 작은 성과는 Korean National Peace Committee 위원장 한설야가 해외에 보낸 영어서한에서, 영문 이름을 ‘Han Sul Ya’로 썼다는 것과 서명을 한글로 했다는 정도다. 또한 이 글에서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설야가 쓴 소설들인 “기적”(1950), “하늘의 영웅”(1950), “초소에서”(1951), “전별”(1951), “승냥이”(1951), “력사”(1951), “대동강”(1952), “황초령”(1952), “땅크 214호”(1953) 등에 나타난 한설야의 평화담론은 기존 연구가 있기에 다루지 않는다. “승냥이”와 “대동강” 그리고 전쟁 후의 작품인 “길은 하나이다”(1958) 등에 나타난 한설야의 평화담론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는 고자연, “한설야 소설에 나타난 평화담론과 소설화: 한설야의 반미(反美)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70호(2019), 141~167쪽. 한국전쟁기 북한의 평화운동에 대해서는 정용욱, “6·25 전쟁: 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 현실』, 제91호(2014), 285~315쪽.

2. 한설야의 반미담론

북한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김일성의 방송연설을 통해 남한군의 북침으로 정리했다.¹⁷⁾ 남한이 도발했다고 주장한 “동족 상잔의 내란”에서 북한은 통일의 기회를 포착하는 역설을 보였다. 남한의 38선 이북 지역에 대한 “전면적 진공”은 즉각 격퇴되고 오히려 공격을 받은 북한의 군이 남한지역으로 진격하는 형국이었다. 한반도 ‘내전’은 곧 ‘정의의 전쟁’으로 정의되었다. 김일성의 방송연설과 함께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인 『근로자』에 실린 글에서는,¹⁸⁾ 자신들은 전쟁을 절대 반대해 왔지만 남한의 침공을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해 왔고, 자신들이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쟁을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으로 구분하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이라는 것이 그 글의 요지였다.¹⁹⁾

한국전쟁 당시 ‘내전’과 ‘정의의 전쟁’은 맑스주의에 의해 독특한 정의를 부여받는 개념이었다. 맑스주의에서 내전은 사회계급들 사이의 무장갈등이었고, 내전이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계급해방을 추구한다면 정의의 전쟁이었다.²⁰⁾ 남한 내부의 무장투쟁

17) 김일성,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 장군의 방송 연설,” 『근로자』, 제12호(1950), 3~9쪽.

18) 장순명, “조선 인민들의 조국 통일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 『근로자』, 제12호(1950), 12~20쪽.

19) 자본주의의 폐절만이 전쟁을 없앤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평화론’이 이 시기에도 작동하고 있었다.

20) 맑스주의의 전쟁과 평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K. Kára, “On the Marxist Theory of War and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5, No.1(1968), pp.1~27.

인 빨치산 투쟁을 평화담론 내부로 포섭한 한설야가 참여한 세계평화대회는 “평화의 빨치산 세계대회(World Congress of the Partisans of Peace)”로도 불렸다.²¹⁾ 맑스주의에서 폭력은 선형적 부정과 긍정의 대상이 아니었다. 폭력이 반동적인가 진보적인가가 문제일 뿐이었다. 따라서 평화도 때론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었다. 평화와 빨치산이 공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빨치산은 비정규 전투원을 일컫는 용어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는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 운동과 같은 토착적인 조국의 방어자와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같은 공격적인 혁명적 활동가의 두 유형으로 구분되었다.²²⁾ 맑스주의자 레닌에게는 빨치산 투쟁은 내전의 방법과 일치하는 것이었다.²³⁾ 평화의 빨치산은, 파리대회에서 중국과 그리스에서 발생한 내전을 규탄하지 않았다.²⁴⁾ 한설야는 내전을 통해 등장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수립을 세계 민주 진영의 승리로 묘사하며, 이 승리 위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²⁵⁾ 실제로 내전은 둘 이상의 정부들 사이에 벌어지는 군사적

21) 피카소(P. Picasso)가 그린 파리 세계평화대회 그림에는 비둘기가 있고, 그 밑에 “평화의 빨치산 세계대회(CONGRÈS MONDIAL DES PARTISANS DE LA PAIX)”가 프랑스어로 쓰여 있다.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69933>(검색일: 2023년 7월 10일).

22) C. Schmitt, *Theory of the Partisan: Intermediate Commentary on the Concept of the Political*, translated by G. L. Ulmen(New York: Telos Press Publishing, 2007), pp.xiv-xv. 한국어 번역본은 칼 슈미트(Carl Schmitt), 『파르티잔』, 김효전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23) 레닌의 글 “빠르찌잔전(戰)”이 포함된 『전쟁 폭동 및 평화에 관한 레닌, 스탈린의 저작들 중에서』가 1950년 5월 10일 로동당출판사에서 간행된 바 있다.

24) D. McLachlan, “The Partisans of Peace,” *International Affairs*, Vol.27, No.1 (1951), p.11.

갈등으로 나타나며, 일방이 타방에 대한 완전한 정복 또는 적 정부의 소멸을 위한 전쟁이기에, 전쟁 당사자 모두 정의의 전쟁의 수사를 가지게 된다. 서로 다른 정의들(justices)이 폭력적 갈등을 빚는 상태가 내전이고, 북한은 한국전쟁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정의를 ‘조국해방전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한국전쟁 초기 문건에는 북한의 남침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누가 먼저 공격하였는가가 정의의 전쟁에서 표준이 되지 못한다는 발언까지 있을 정도였다.²⁵⁾

북한은 미국의 내전이었던 1860년대 남북전쟁을 예로 하여, 통일을 목표로 하는 내전에 외국 세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전개했다.²⁷⁾ 한국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남조선로동당의 지도자 박헌영은 아래와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²⁸⁾

만약 다른 나라 군대가 뉴욕이나 워싱턴을 비롯한 도시와 농촌과 모든 생산 기관들을 전부 소각 파괴하면서 미국의 독립을 원조한다고 하면 미국인들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한국전쟁 발발 직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근거하여 한반도에 파견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의 철수를 요구하기 위한 북한 특유의 내전에 대한 해석이었다. 김일성은 미국이 한반도 “내정”에 “무장적 간섭”을 했고, 소련이 참여하지 않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5) 한설야, “세계민주진영의 승리다,” 『로동신문』, 1949년 10월 8일.

26) 장순명, “조선 인민들의 조국 통일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 12~20쪽.

27) 『로동신문』, 1950년 7월 5일; 1950년 8월 11일.

28) 박헌영, “조선 인민군 창건 3주년 기념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진술한 박 헌영 동지의 보고,” 『근로자』, 제2호(1951), 29~47쪽.

결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폈다.²⁹⁾ 내전으로서 정의의 해방전쟁라는 정의에 부합하게 박헌영은 남한의 인민에게 폭력적 방법인 “첫째도 폭동, 둘째도 폭동, 셋째도 폭동”을 요구했다.³⁰⁾

한설야가 참여한 국제평화운동을 반파시즘 계열의 지식인들이 주도했던 것처럼, 한설야의 반미담론은 히틀러(A. Hitler)의 후계자로 미국과 미군을 ‘악마화’하는 것이었다. 한설야의 미군에 대한 비난의 시작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과 7월 남북한의 “평화스러운 도시와 농촌에 대한” “무차별 폭격”에 대한 지적이었다.³¹⁾ 북한군이 남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은 “이 분포이를 무방비한 농촌과 평화인민에게 감행하는 비겁 추악한 만행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알려진 것처럼, 공군력이 열위인 북한의 입장에서 폭격은 가장 공포를 느끼는 미군의 군사작전이었고, 폭격은 군사 목표는 물론 민간지역에 대해서도 이루어졌었다.³²⁾

29) 김일성,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의 방송 연설,” 『근로자』, 제14호(1950).

30) 박헌영, “남반부 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한 박헌영 동지의 방송 연설,” 『근로자』, 제13호(1950), 3~9쪽.

31) 한설야가 적시한 폭격은 6월 28일 남한의 춘천지구, 6월 28일 남한의 의정부, 수원, 개성, 6월 29일 수도 서울시와 주변 일대였다. 북쪽에 대한 폭격은, 7월 2일 함남 함주군 선덕면 일대, 6월 29일부터 매일같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평양 일대에 대한 폭격이었다[한설야, “히틀러 후계자 미제강도들은 우리 농촌과 도시들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있다,” 『로동신문』, 1950년 7월 14일]. 미군의 전투기가 수원에 집결한 날이 6월 28일이었고, B-29폭격기가 평양을 처음 폭격한 날이 6월 29일이었[양영조 외, 『6·25전쟁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801쪽]. 한설야는 폭격과 더불어 미국 함선이 “조선해안의 주택과 주민에게 무차별함포사격을 가하”는 것도 “평화적 인민”에 대한 학살로 비난했다[한설야, “트루그베리 - 는 우리조국에 대한 미제의 무장침범의 공모자이다,” 『로동신문』, 1950년 7월 21일].

폭격에 대한 공포와 증오로 한설야는 미군을 “놈”이자 “개”로 만들게 된다.

놈들은 이 분풀이를 무방비한 농촌과 평화인민에게 감행하는 비겁 추악한 만행으로 나오고 있다. 본시 이 자들에게서 양심을 찾는 것은 마치 개에게서 도덕을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이 자들에게 줄 우리의 선물은 『폼새는 무덤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격언이 우리에게 가져쳐 주는 것과 같이 무덤 그것 뿐이다. 즉 하나에도 격멸이요 둘에도 격멸이요 셋에도 격멸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설야의 반미는 식민지시대의 “미국선교사”로 “소급”된다.³²⁾ 한설야가 한국전쟁의 외증인 1951년 4월 『문학예술』에 발표한 미국 선교사의 ‘만행’을 다룬 반미 소설 “승냥이”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벌써 이 자들의 형제들에서 많이 보았다. 일찍이 미국선교사는 자기 사과밭에서 사과하나를 주어먹은 조선의 어린이를 불로 이마를 지졌고 또 인두로 손을 지졌다. 『이 손에 악마 붙었다』고 하면서 손을 지졌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의 손을 인두로 지지는 자의 머리 속에 악

32) 북한이 느낀 “충격과 공포, 그리고 증오”가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파주: 창비, 2013)의 6장의 첫머리를 구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발간된 반미 서적에서는 “미제의 야수적폭격만행과 산업시설 및 문화재에 대한 파괴약탈”로 표현하고 있다. 오혜경·최광철·황택선, 『죄악에 찬 미제의 조선침략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169~176쪽.

33) 미군의 만행에서 미국선교사의 만행으로의 “소급”은 고자연, “한설야 소설에 나타난 평화담론과 소설화,” 145~152쪽.

마가 백여 있는 것이다.³⁴⁾

이제 미군과 미국선교사는 “악마”로 전환된다. 식민지시대부터 그리고 한국전쟁 전의 해방정국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의 원수이며 인류의 원수”였다. 그러나 한설야는 미국인 가운데도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도 찾았다. “미국공산당 전국위원회”가 “『조선인민에 주는 불행은 곧 미국인민에게 주는 불행이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했음을 적었다.

34) 이 구절은 1950년 12월 김일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반복된다. “지난 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조선에 기어들었던 미제승냥이놈이 조선의 한 어린이가 사과밭에서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그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겨놓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치명적인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미제침략자들의 승냥이본성입니다”[김일성,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 과학자들과 한 담화, 1950년 12월 24일,” 김일성, 『사회주의 문학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42~52쪽].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 기간 북한 내부의 권력투쟁의 칼날은 문학예술인을 향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설야가 『승냥이』를 발표하기 직전인 1951년 3월 한설야는 “조국해방전쟁 가운데서 문학예술은 미국무력침공자들에 대한 인민들의 적개심을 격발시키며 고무추동하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였는가를 물었다. “우리들은 무기의 생산상태를 검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한설야의 발언이었다. 한설야는 “(전선에) 동원된 작가들의 수에 비하여 생산된 작품의 량도 아직 부족하였고 작품들에서는 영웅성 대신에 비참성을 표현하는 등의 낡은 수법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한설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기회의의 총화와 문학예술인들의 당면과업(요지),” 『로동신문』, 1951년 3월 20일]. 『승냥이』가 미국에 대한 원초적 반대를 표명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보인다. 1951년 7월 김일성은 문학사조로서 자연주의를 직격하는 발언을 하게 된다. 만행을 그대로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예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김일성의 주장이었다[김일성, 『김일성장군의 격려의 말씀: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 문화선전성, 1951년 7월].

1950년 9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즈음에 출간된 한설야의 반미담론은 “미국 식인종들의 말로” 까지 갔다.³⁵⁾ 짧은 소설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글들에서, 핵심어는 “포로”였다. 미군이 한반도에 와서 처음 배우는 단어가 “포로”이고, 잡혔을 때 두 손을 들고 “포로 포로”를 외치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은 ‘흑인병사’에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포로 포로”를 외치게 해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다고 하며, 미국의 인종주의를 직격하기도 한다. 한설야는 “평화인민을 폭살”하는 미군을 “식인종”으로 설정했다.³⁶⁾

“미국 식인종의 말로” 상편은, 북한군 항공부대 추격기 구분대의 “리동규 비행사”와 폭격의 주체로 “공중요새”로 불린 B-29 조종사 “레이튼 중위”가 벌이는 공중전을 담았다. 때는 전쟁 초기 북한군이 조치원을 거쳐 금강 방향으로 남진하던 즈음이었다. “무차별 폭살”의 주범 B29를 추격하던 “리동규 비행사”는 결국 격추했고, 미군 조종사는 낙하산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포로 포로”를 외치며 살고자 했다. 그 순간 ‘중오’에 찬 리동규의 생각을 한설야는 다음과 같이 썼다.

리동규 비행사는 순간 죽음보다 몇 배나 더 추악한 살인의 이 꼴을 탄

35) 한설야, “미국 식인종들의 말로(상),” 『로동신문』, 1950년 9월 19일; “미국 식인종들의 말로(하),” 『로동신문』, 1950년 9월 20일. ‘식인종’은 한국전쟁기에 다시금 등장한다. “조선 인민군 창건 3주년 기념에 제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구호,” 『근로자』, 제2호(1951), 3~8쪽. 그러나 조금은 무모해 보이는 극한 담론인 식인종보다는 그저 짐승 ‘승냥이’가 미국을 비아냥하는 구호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36) 북한은 한국전쟁기 미군을 “인간도살자”로 묘사하기도 한다. 오혜경·최광철·황택선, 『최악에 찬 미제의 조선침략사』, 135~151쪽.

환으로 종결지어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그 비루한 꼴을 형제자매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지대는 바로 38선 남쪽의 해방지구였다.

남한 지역에서 북한군이 미군을 격퇴하는 장면을 한설야는 짧은 소설에 담고자 했다. 포로로 잡힌 미군장교는 포로수용소의 미군병사에게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폭탄을 투하할 것을 명령한” 장교로 지칭된다. 미군 내부의 갈등을 한설야는 “개싸움”으로 묘사한다.

“미국 식인종의 말로” 하편에서는 미국을 분해해서 보려는 시도가 다시 반복된다.

우리는 미국의 멸망을 믿지 않는다. 다만 오늘의 미국 지배자의 멸망을 믿을 뿐이다. 이미 신성한 새조국이 광범한 미국인민들에게 솟아오르고 있다. 조선에 대한 미국간섭에 대한 미국공산당의 성명서와 결정서들과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의 전쟁반대의 절규와 미국 평화애호인민들의 전쟁반대의 소리는 트루먼이 조국 월가가 아닌 진정한 새조국의 목소리며 인민들의 목소리인 것이다.

전쟁의 원인은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의 탓이라는 전형적인 레닌주의적 사고로 미국을 보면서도,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국제연대의 대상을 미국 내에서 찾았다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다.

한국전쟁 기간 탄생한 한설야의 반미담론이 내장한 서사는 ‘탈식민주의’를 지향하는 ‘급진적 반미주의(radical anti-Americanism)’로 읽힌다.³⁷⁾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저항하면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와 사회에 나타난 반미담론과 반미주의라는 의미다. 처음 국제평화운

동에서 제시한 전쟁 진영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한설야는, 한반도 내전에 대한 미국의 무장개입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그리고 실제 미군과의 전쟁에서 느낀 공포와 증오를 통해, 반미담론을 구성하고자 했다. 자본주의와 기독교로 대표되는 미국적 가치 그 자체에 대한 반대는 물론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 미국의 개입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한 저항이 한설야의 반미담론에 담겨 있었다.

3. 한설야의 국제연대담론

1949년 4월 파리 세계평화대회에서 반미를 명확히 한 소련에 우호적인 평화운동세력은 1949년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의 모임에서 핵무기의 불법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1949년 8월 29일 소련이 카자흐스탄의 사막에서 핵실험을 했음에도, 평화운동세력은 ‘반핵’을 구호로 만든 것이다.³⁸⁾ 소련은 첫 핵실험 사실을 숨겼으나, 한 달이 채 지나

37) Kab Woo Koo,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 *Asian Perspective*, Vol.42(2017), pp.291~308. 반미주의는 탈식민적 제국주의국가인 이차대전 이후 패권국가 미국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표현 또는 그 태도를 유지하려는 심리적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급진적 반미주의와 더불어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자유주의적(liberal) 반미주의’, ‘사회적(social) 반미주의’, 탈식민적 제국주의국가에 대한 저항으로 등장한 제3세계의 ‘주권적-민족주의적(sovereign-nationalist) 반미주의’ 등이 언급된다. 반미주의의 분류는, R. Keohane and P. Katzenstein(eds.),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38) 한설야는 한국전쟁의 와중에 소련의 핵무기 보유를 다음과 같이 ‘모순적으로’ 정당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오늘 새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진영의 선두에 선 소련이 원자력을 평화산업에 리용하고 있으며 원자탄을 소유하고

지 않은 1949년 9월 23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정찰기를 통한 방사능 탐지를 토대로 소련의 핵실험을 직접 공개하며, 핵에너지의 국제적 통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³⁹⁾ 소련이 핵실험 사실을 인정하자 북한은 소련의 핵무기 보유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⁴⁰⁾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비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한설야는 파리 세계평화대회 귀환보고에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⁴¹⁾

1949년 10월 시점에서 소련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소련 진영이 반핵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당시 핵무기와 운반체계의 측면에서 미국이 실제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⁴²⁾ 1950년 3월 줄리오큐리의 주도로 소련의 작가인 에렌부르크(I. Ehrenburg)가 쓴 ‘스톡홀름 호소문(Stockholm Appeal)’은, 핵무기의 무조건적 금지와 핵무기의 국제적 통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 정부를 전범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기초로 선의를 가진 인민들에게 서명을 호소했다.⁴³⁾ 이

있다는 사실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더욱 튼튼한 신념을 가지게 하며 새 전쟁도발자들을 반대하는 평화진영의 강대한 역량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한설야, “원자 무기에 관하여: 쓰팔린 대원수가 『쁘라우다』지 기자에게 준 대답에 대한 각계의 반향,” 『로동신문』, 1951년 10월 10일. 미국의 핵무기는 ‘나쁜’ 핵무기이고 소련의 핵무기는 ‘좋은’ 핵무기라는 모순적 발상이다.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2014), 197~250쪽.

39) 트루만 성명의 원문은,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statement-president-truman-response-first-soviet-nuclear-test>(검색일: 2023년 7월 10일).

40) 『로동신문』, 1949년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41) 한설야, “평화옹호세계대회 참가 귀환 보고”.

42) Wittner, *One World or None*, p.181.

43)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215~216쪽.

서명운동은 한국전쟁 전 북한에서도 진행되었지만, 한설야의 변형된 평화담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반핵보다는 “조국통일”에 초점이 맞추어진 대중운동이었다.⁴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전쟁상인(war monger)’으로 낙인이 찍히는 이 ‘창발적’ 서명운동이 전쟁과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을 담지 않았고, 북한이 남침하기 직전 이 서명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당시의 논평자도 있었다.⁴⁵⁾

한설야는 한국전쟁의 와중에도 평화운동가로서 국제연대를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 열리는 평화대회에 참여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세계평화대회 상설위원회 사무국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북한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 연대의사를 밝혔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세계평화대회가 구체적 전쟁에 대해 의사표현을 한 셈이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이 참여해 한국전쟁이 국제전이 된 1950년 11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평화대회에서 국제기구로 세계평화이사회(World Peace Council)가 만들어졌고,⁴⁶⁾ 채택된 10개항의 결의안에는 반핵의 ‘구호’를 넘어 당시 소련 진영이 공유하고 있던 평화‘정책’이 담겼다.⁴⁷⁾ 결의안 제1항에서 한국전쟁의 “종식(termination)”, 한반도

44) 정용욱, “6·25전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비평』, 제106호(2014), 83~84쪽.

45) D. McLachlan, “The Partisans of Peace,” pp.12~13. 북한은 한국전쟁 기간 국제평화운동이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대중선전용 자료를 다수 생산했다. 예를 들어, 조선인민군전선총사령부 문화훈련국이 1950년 8·15해방 5주년 “담화자료집”의 제목은 “조선인민의 정의의 전쟁은 전세계 평화애호인민의 절대한 지지를 받고 있다”였다.

46) 한설야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민지원부대가 조선에서 작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중국침략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며 사실상 미국이 아무 이유도 없이 중국의 각지를 폭격한 사실들에 대하여 불가피적으로 취한 자위적인 행동이다.” 한설야, “전쟁방화자들을 적발하는 강력한 대책,” 『로동신문』, 1951년 3월 4일.

에서 외국군대의 철수, “한반도 인민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한반도 양 부분들 사이의 내적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언급되었다.⁴⁸⁾ 여기에 1949년 10월 탄생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여하여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중단, 베트남에 대한 적대정책의 중단 등도 한국전쟁의 종료와 함께 언급되었다. 권위 있는 국제위원회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제6항에 담겼다.⁴⁹⁾

47) “Resolution adopted by the Partisans of Peace in Warsaw, November 1950,” in M. Carlyle(ed.), *Documents on International Affairs 1949-195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p.145~148.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항은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반대였다. 3항은 종속과 식민적 억압에 대한 반대였다. 4항에서는 내정간섭에 대한 반대와 더불어 침략을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5항에서는 모든 국가의 의회에서 ‘평화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7항은 군축과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특히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통해서도 평가가 보장될 수 없음을 밝힌 부분이 주목의 대상이다. 8항은 전쟁경제를 벗어나 정상적인 교역관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었다. 9항은 인민들 사이에 문화적 관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었다. 10항은 세계평화이사회를 유엔기구로 만들자는 제안이었다.

48) 바르샤바 평화대회가 열릴 당시 한국전쟁 초기와 달리 전세가 북한에게 불리했다. 전쟁의 종식이 강조된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유엔군이 복진하고 중국인 민지원군이 개입한 시점이었다. 조선로동당 선전선동부장 최창옥은 이 불리한 전세를 대중 사이에서 “정치 선전 교양 사업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한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미군이 “원자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대중의 동요를 일으켰다는 자체 분석도 했다[최창옥, “현단계에 있어서 대중정치사업의 강화,” 『근로자』, 제2호(1951)]. 한국전쟁기 북한정치에서 숙청이 시작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했다.

49)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한철야의 국제연대담론이 미군의 ‘세균전’과 관련된 논란이다. 1951년 5월 북한 외무상 박헌영이 미군이 천연두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세균전을 했다고 주장한 이후, 한국전쟁기 한철야의 논설에도 주기적으

한설야는 세계평화이사회가 주도하는 평화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한국전쟁에서 북한의 입장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한설야는 1951년 11월 오스트리아의 빈, 1952년 3월 노르웨이의 오슬로, 1952년 7월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세계평화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1952년 9월에는 중국의 북경에서 열린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대회에, 1952년 12월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평화옹호인민대회에 갔다.⁵⁰⁾ 북한에서는 전쟁의 와중이었지만 세계평화이사회가 1951년 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중국이 포함된 5대 강국의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하자, 스톡홀름 호소문 서명운동에 이어 다시금 서명운동이 전개되었다.⁵¹⁾

한국전쟁의 종식을 요구했던 바르샤바 평화대회를 수용한 한설야의 주장은, “승리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라는 것이었다.⁵²⁾ 한설야는 “조국 해방전쟁을 신속히 승리로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에서의 평화옹호운동은 “조국을 통일하며 국토를 안정하는 문제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한설야는 “세계의 양심 있는 사람

로 세균전에 대한 고발이 등장했다. 최초 한설야의 세균전 의혹 제기는 한설야, “답사,” 『로동신문』, 1951년 5월 23일. 특히 1952년 2월 국제평화운동 세력들이 중국과 소련의 세균전 고발에 호응하면서, 한설야는 미군의 세균전 비난을 매개로 국제연대를 구성하고자 했다[Wittner, *One World or None*, pp.185~186]. 세균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설야의 국제연대담론에서 세균전은 생략했다. 한국전쟁기 미군의 세균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리는 전예목,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내막,” 『군사』, 제120호(2021), 1~42쪽.

50) 한국전쟁 기간 한설야의 평화운동가로서의 해외활동은, 고자연, “해방 후 한설야 문학 연구”(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5~86쪽.

51) 한설야, “전쟁방화자들을 적발하는 강력한 대책,” 『로동신문』, 1951년 3월 4일.

52) 한설야, “승리만이 평화를 보장한다,” 『로동신문』, 1951년 4월 27일.

들 얼굴 속에서”, “미국의 백인 노동자들이 흑인가수 폴.로브슨을 옹호”할 때,⁵³⁾ “평화옹호 호소문에 서명하고 있는 희랍 빨찌산들”에서, “불란서 전상군인들이 부상당했던 부자유한 손으로 평화옹호 호소문에” 서명하는 모습에서, “조선인민을 학살하는데 사용할 폭탄의 적재를 거부하는 미국과 일본의 부두노동자들의 뜨거운 악수”에서, “우리의 얼굴을 스스로 발견”했다고 썼다. 한설야가 전쟁의 와중에 발신한 국제연대의 담론이었다.

1951년 11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세계평화이사회 회의에서 한설야는 “조선인민은 지금 평화옹호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발언했다고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⁵⁴⁾ 한국전쟁을 평화옹호투쟁과 등치하는 발언이었다. 한설야에게는 “조국의 자유와 영예와 독립”과 동의어였던 평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폭력적인 방식인 전쟁도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의 일단이었다. 빈 회의와 1952년 3월 노르웨이의 오슬로 회의에서 결정된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옹호회의’를 준비하며, 한설야는 한국전쟁을 서로 합의에 의해 중단하는 ‘정전(armistice, 停戰)협상’을, “미제는 자기의 패배와 세계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조선 정전 담판회의를 개시하고서는 일변으로 조선전쟁의 확대를 획책하였으며 조선에 대한 폭격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⁵⁵⁾ 한반도 정전협상은 즉각적인 전쟁의 종단을 의미하는 ‘정화

53) 한국전쟁에 반대한 평화운동가로서 폴 로브슨(Paul Robeson)의 모습은 미국 럿거스(Rutgers) 대학 수지 킴(Suzy Kim) 교수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Shining the Light on Paul Robeson’s Activism Against the Korean War,” Rutgers global, <https://global.rutgers.edu/shining-light-paul-robersons-activism-against-korean-war>(검색일: 2023년 7월 29일).

54) 한설야, “세계평화리사회 회의의 한설야 동지 조선인민의 평화투쟁에 관하여 연설,” 『로동신문』, 1951년 11월 11일.

(cease-fire) 없이 진행된 정전협상이었다. 1951년 7월 한설야가 참여한 독일의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이사회 특별회의에서는 “조선 전쟁을 즉시로 종결시킬 데 관한 문제”가 “중심적인 의제”였다.⁵⁶⁾

1952년 9월 중국의 북경에서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평화옹호대회가 소집된 이유는, 한국전쟁의 외증인 1951년 9월 이차대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이었다. “일본의 평화 조약 문제”를 세계평화이사회는 중국과 소련과 인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체결되었다는 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직후 체결된 미일동맹조약이 일본의 재무장과 일본영토에 외국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에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⁵⁷⁾ 아세아 및 태평양 대회에서 한설야는 스스로 정의의 전쟁,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불렀던 전쟁을 수행하면서 “평화는 전쟁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⁵⁸⁾ 한설야에게 평화는 전쟁과 모순되지 않는 그 무엇이었다. “미제의 침략”으로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조국의 자유와 민주와 독립을 위한 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이며, “조국이 없이 민족의 평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조국의 땅에서 침략자들을 일소하지 않고는 이 땅에 평화가 있을

55) 한설야,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옹호를 위하여,” 『로동신문』,

56) 한설야, “세계평화리사회 특별회의에서 도라온 한설야 동지의 귀환담,” 1952년 7월 31일.

57) 한설야,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옹호를 위하여,” 1952년 5월 25일.

58) 한설야의 문학평론과 정치평론은, 1950~1960년대 중국 문단에 번역되었다. 신선옥, “1950~60년대 중국 문단에 소개된 한설야와 그의 문학평론 연구,” 『어문론집』, 제83호(2020), 291~312쪽. 한설야의 이 대회 참가는 한설야를 북한 문단의 핵심으로 보게끔 하는 한 계기였을 것이다. 한설야는 1920년대, 1940년 6월 그리고 한국전쟁기에 중국의 북경에 있었다. 조곤, “한설야 『열풍』의 등장인물과 실존모텔,” 『서강인문논총』, 제54집(2019), 77~104쪽.

수 없”다는 것이 한설야가 아세아 및 태평양 대회에서 한 발언의 핵심이었다. 한설야에 따르면 한반도에서의 평화는 전 세계와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한설야는 아세아 및 태평양 대회에서 당시 진행되고 있던 정전협상에 대해서도 북한 측 입장에 대한 국제적 동의를 얻고자 했다.⁵⁹⁾ 1951년 7월에 시작한 정전협상이 1년 3개월 정도 지났지만 타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던 시점이었다. 한설야는 이 ‘지연’을 미국의 “지배층” 탓으로 돌렸다.

정전담판의 행정은 미국 지배층들이 정전담판을 원치 않으며 또한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치 않으며 전쟁을 확대하려 하며 전쟁에서 얻지 못한 것을 담판에서 얻으려 하고 있다는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한설야도 1952년 10월의 시점에서 정전협상의 ‘유일한’ 쟁점이 “포로송환에 대한 문제”였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한설야는 북한과 중국의 공식 입장처럼 1949년 제네바협정에 따른 쌍방의 포로를 전부 송환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 내에서는 정전협상 시작 전부터 ‘자원송환(voluntary repatriation)’을 원칙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⁶⁰⁾ 제네바협정은 포로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가지고 있었기에 자원송환도 협상 가능한 방식이기는 했다.⁶¹⁾ 미국이 자원송환을 선택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

59) 한설야, “공평하고 합리적 기초 위에서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관한 한설야의 보고,” 『로동신문』, 1952년 10월 6일.

60)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2000), 53쪽.

겠다고 하는 포로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심리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들 가운데 과거 국민당군 소속이었던 포로들의 일부가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은 미국의 자원송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웠다. 남한의 포로수용소에서 반공포로와 친공포로 사이의 갈등이 격화된 것도 미국이 심리전의 한 방식으로 자원송환을 선택하게끔 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한설야는 한국전쟁기 거제도 포로수용소의 친공포로들이 1953년 5월 23일 작성하여 빨치산 부대를 통해 평양에 전달한 호소문에서 조국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을 들어 미군이 자원송환을 “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⁶²⁾ 한설야의 논리는, 만약 “중국인민지원군 포로를 포함한 10만 이상의 우리 측 포로들이 자기 고향으로 도라갈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 보낼 수 없다”면, 미군은 왜 “포로수용소에서 그들의 직접 지휘 하에 장갑차와 중포크와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하여 적수 공권의 우리 측 포로들을 전쟁의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공격하며 학살하여 류혈적 참극을 몇 차례씩이나 계속 연출하고 있겠는가”였다. 결국 1953년 6월 8일 인도가 중재한 타협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귀환을 희망하는 포로는 송환하고, 중립국감시위원단(인도, 스웨덴, 스위스, 폴란드, 체코)은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 수용소를 설치하며, 본국이 송환 거부 포로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61) 이 문장부터 이 페러그래프의 이하 부분은 박태균, 『한국전쟁』(서울: 책과함께, 2005), 262~265쪽.

62) 이 호소문의 일부는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역사문제연구』, 제21권 2호(2017), 317~318쪽.

1952년 12월 한설야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린 평화옹호인민대회에 참가했을 때, 전쟁 종식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 상태였다. 정전협상의 타결을 원하는 『로동신문』에 보도된 한설야 연설의 일부다.

새 전쟁의 재난이 자기 국가에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선에서의 전쟁의 불을 끄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에 대한 강조가 이어진다. 정의의 전쟁, 조국해방전쟁의 수사도 한설야의 연설에서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의 통일로 번역했던 한반도의 평화도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평화 그 자체에 대한 갈망만을 드러낸다. 일시적이지만 한설야가 절대 평화주의자가 되는 순간의 도래였다. 1952년 12월의 시점에서 한국전쟁은 어느 한편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⁶³⁾

만일 당신이 인류가 오늘 우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한다면 그 대답은 첫째 평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 둘째 평화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 셋째 평화를 위한 의지인 것이다.

빈 평화옹호인민대회를 마치고 귀환했을 때도, “원나 평화옹호인민대회의 중심 문제의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조선전쟁의 즉시 종식에 관한 문제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⁶⁴⁾ 한국전쟁에 개입한 외국

63) “전투는 바야흐로 최종적 단계”라고 했던 한국전쟁 초기 한설야의 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한설야,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세계 민주 역량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근로자』, 제14호(1950), 38~50쪽.

군 철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한설야는 1952년 10월 아세아 및 태평양 대회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조선으로부터 철퇴시키”자는 요구를 한 바 있었다. 미군을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도 않았다.⁶⁵⁾

4. 향후 연구를 위한 상상력: 결론에 대신하여

김연수 작가의 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에는 러시아어 번역이 주업인 시를 쓰지 못하는 시인들의 시인 백석의 북한에서의 삶이 성(姓) 없이 ‘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과 허구를 가로지르며 기록되어 있다.⁶⁶⁾ 또 한 명 이름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병도’다. 기행보다 열두 살가량 많지만 마치 기행의 친구처럼 이름만으로 등장하는 병도는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한설야다. 병도는 소설에서 때론 위원장으로서만 불린다.⁶⁷⁾ 이 소설의 주 시기가 1957~1963년의 일곱 해이기에 한국전

64) 한설야, “평화력량은 필승불패의 것이다. 평화옹호인민대회 조선 대표단 단장 한설야 동지의 귀환담,” 『로동신문』, 1953년 1월 26일.

65) 한국전쟁을 합의에 의해 중단하는 정전협상의 초기에 북한이 요구했던 외국인 철수에는 처음부터 중국인민지원군의 철수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유엔군 측도 인지하고 있었다. 구갑우,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호(2021), 263~264쪽.

66) 김연수, 『일곱 해의 마지막』(파주: 문학동네, 2020).

67) 『일곱 해의 마지막』에 대한 아름다운 평론은, 오태호, “분단 시대를 사를 모다 불의 상상력, 1950~60년대 백석 시인의 내면 풍경: 김연수의 『일곱 해의 마지막』론,” 『민족화해』, 제108호(2021), 64~67쪽. 그러나 이 서평에는, 기행과 병도의 관계가 없다.

쟁기 기행과 병도의 관계는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한국전쟁 이후 한설야의 평화담론을 다음 과제로 만들기 위해 소설 속 조연 가운데 하나인 병도에 대한 작가 김연수의 '상상력'에 잠시 기대어 본다.

소설의 말미인 1963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함경남도 삼수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시인 기행은 병도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기행을 협동농장이란 현장으로 가게끔 한 혐의가 있을 법한 위원장 병도이기에 기행은 “서운함”과 식민지 시절부터 알고 지낸 병도였기에 “반가움”의 교차를 느낀다. 주체사상이 부상하던 그 시점에 주체사상이 아니라 “유물사관”으로 시작하는 병도의 편지에서, 식민지 시대 함께 활약한 벗들을 “단죄”하고 그들의 사라짐을 “방관”했음을 “변명”하는 모습에 실망을 느끼지만, 식민지 시대에 병도의 딸 녹손(綠孫)이 변을 당했을 때 병도와 그녀를 도운 기행을 회고하자 편지를 계속 읽는다. 병도의 편지에는 한국전쟁기에 숙청으로 사라진 남로당 계열의 박현영과 임화 등도 언급된다. 기행은 그 지점에서 편지의 걸봉을 본다. 위원장 병도도 자강도 시중군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소설가가 되었음을 알아차린다.

한국전쟁기 평화담론을 생산할 때, 한설야는 “리기영의 『고향』 『봄』 한설야의 『황혼』, 『탑』, 김남천의 『대하』 등의 장편과 립화의 시집 『현해탄』 등”을 “조국과 인민에게 복무”하는 문학예술로 언급한 바 있었다.⁶⁸⁾ 임화도 식민지 시대에 “조선민족의 문명의 새로운 력사적 담당자로서 로동계급”을 한설야의 작품 “씨름”, “과도기”, “황혼” 등에서 볼 수 있다고, 한국전쟁 와중에 한설야의 글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지나 썼다.⁶⁹⁾ 그러나 195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68) 한설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의 총화와 문학예술인들의 당면과정(요지),” 『로동신문』, 1951년 3월 20일.

69) 립화, “조선문학 발전위에 끼친 막심 고리끼의 거대한 영향,” 『조소친선』, 7월호

서는 남로당 계열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고, 1953년 1월 임화는 문학 부문에서 사실상 주요 타격 방향이 된다.⁷⁰⁾ 당시 문학예술총동맹의 위원장은 한설야였다. 김연수의 소설에서 병도는 기행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지들에 대한 “문학적 기소장”을 작성한 것에 대해 “변명”하고 있었다.⁷¹⁾

한설야는 한국전쟁의 막바지에, 정의의 전쟁 또는 조국해방전쟁으로 한국전쟁을 정의하던 초기의 입장에서 벗어나, 전쟁의 즉각적인 종식만을 외치는 일시적으로 모든 폭력을 배제하는 절대 평화주의자가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한설야의 평화담론 구성과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한설야의 두 가지 ‘전환’에 주목할 예정이다.

첫째, 김연수가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행의 “주변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은 병도였다. 그는 해방 직후 소련군과 함께 평양에 나타난 젊은 수령의 귀환을 전설적인 장군의 개선으로 묘사한 소설을 누구보다도 빨리 썼기에 그뒤로 승승장구했다.” 김연수의 상상력이지만, 병도는 기행에게 “해방 직후에 평양으로 입성한 젊은 수령을 만났을 때, 나는 비로소 창조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 한설야가, 북한에서 수령형상문학의 시작을 알렸던 한설야가, 식민지 시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아니라 적색농민운동을 다룬 소설 ‘설봉산’(1956년)과 조선혁명의 지도자 김일성이 아닌 러시아혁명의 지도자 레닌에

(1951), 37~40쪽.

70) 북한문단 내부에서 공격의 공식적 시작은,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1),” 『문화예술』, 1월호(1953).

71) 한설야는 1960년 카프 운동을 긍정하는 글을 썼다. 물론 그 글에는 1951년에 그가 긍정했던 임화가 없다. 한설야, “《카프》 창간 35주년에 제하여,” 『로동신문』, 1960년 8월 24일.

주목하는 “레닌의 초상”(1957년)을 쓴다. 한설야와 김일성의 ‘균열’이라 부름직한 ‘조집’이었다.⁷²⁾ 다음 글의 첫 번째 목적은, 한설야의 탈김일성 조집이 그의 한국전쟁 이후의 평화담론의 구성과 가지는 연관을 추적하는 것이다.

둘째, 한설야는 한국전쟁 이후 1961년까지 세계평화이사회의 회의에 참여했다. 그도 1962년 협동농장으로 가기 전까지였다.⁷³⁾ 한국전쟁은 국제평화운동과 결합했던 한설야의 언설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국제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 1951년 7월 시작된 정전협상은 그 시점에서 미국이 전범국가 일본을 정상국가화하는 작업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1954년 4~6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열린 제네바 정치회담에서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분단을 제도화했다.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Bandung)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회의(Asian-African Conference)가 열릴 수 있었던 계기 가운데 하나도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을 보며 아시아-아프리카국가들은 자신들의 자결권을 지키는 평화공존의 길을 찾고자 했고, 자기 파괴적 민족내전을 겪지 않을 방안을 얻고자 했다.⁷⁴⁾ 아시아-아프리카는 서구

72) 고자연, “해방 후 한설야 문학연구,” 120~141쪽.

73) 한설야의 글은, 1962년 6월까지 북한매체에 등장했다. 예를 들어, 한설야, “애국의 전통을 계승한 조선의 문화인 답게 남조선의 전체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를 구축하고 국난을 타개하는 투쟁의 대렬에 용감히 나서라!” 『로동신문』, 1962년 6월 22일. 김연수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병도가 기행에게 보낸 편지를 구성하며 작가의 말처럼 들어간 한설야의 식민지 시대와 북한에서의 숙청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인상적이다: “그는(병도) 그 붓으로 세상의 권력에 맞설 수 있다고 믿었고, 그때는 기행도 그 말에 동의했다. 자신들이 언어를 쓴다고만 생각했지, 자신들 역시 언어에 의해 쓰이는 운명이라는 것을 모를 때의 일이었다.”

74) 권현익, “제3세계 운동의 기원으로서 한국전쟁: 버마의 우 누의 중립주의를 연결고리로,” 『역사비평』, 제138호(2022), 224~250쪽.

중심적 평화운동을 넘어서는 ‘탈식민적(post-colonial) 평화운동’의 기호였다. ‘평화운동가’ 한설야는 1956년 5월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위원장이면서 또 다른 직함으로 “조선아세아단결위원회” 위원장을 얻었다.⁷⁵⁾ 한설야는 1957년 12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린 ‘아세아아프리카단결회의’에 북한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한국전쟁 이후 평화운동가 한설야의 ‘평화기행’은 세계평화이사회가 열리는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로까지 확대되었다.⁷⁶⁾ 이 시기 형성된 한설야의 평화담론을 ‘탈식민적 평화운동’의 등장이라는 맥락에서 재구성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이다.⁷⁷⁾

■ 접수: 7월 31일 / 수정: 8월 9일 / 채택: 8월 14일

75) 최초 조선아세아단결위원회에 아프리카가 추가된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로 변화된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76) 한국 시민사회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은 북한보다 먼저 시작되었다. 장세진, 『슬픈 아시아: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1945~1966)』(서울: 푸른역사, 2012). 정영환, “1947년 아시아관계회의와 재일아시아민족회의,” 『역사비평』, 제138호(2022), 251~278쪽.

77) 한국전쟁 이후 한설야의 평화담론과 관련된 연구로는, 고자연, “한설야의 제3세계 인식: 1950년대 중·후반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55호(2019), 51~94쪽; 옥창준,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 『통일과 평화』, 제12집 1호(2020), 5~45쪽; 김태경·이우영·구갑우,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통일과 평화』, 제11집 1호(2019), 157~191쪽;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등이 있다.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일성, 『김일성장군의 격려의 말씀: 전체 작가 예술가들에게』(평양: 문화선전성, 국립출판사, 1951).

_____, 『김일성전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민청 강연 자료, 『전쟁의 길과 평화의 길』(평양: 청년생활사, 1949).

오혜경·최광철·황택선, 『죄악에 찬 미제의 조선킴탁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전쟁 폭동 및 평화에 관한 레닌, 스탈린의 저작들 중에서』(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0).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2) 논문

김일성,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일성장군의 방송 연설,” 『근로자』, 제12호(1950).

_____,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의 방송 연설,” 『근로자』, 제14호(1950).

_____,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 과학자들과 한 담화, 1950년 12월 24일,” 김일성, 『사회주의문학예술론』(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림화, “조선문학 발전위에 끼친 막심 고리끼의 거대한 영향,” 『조소친선』, 7월호(1951).

박영성,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영웅적 조선 인민군,” 『근로자』, 제13호(1950).

박헌영, “남반부 로동당 전체 당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한 박 헌 영 동지의 방송 연설,” 『근로자』, 제13호(1950).

- _____, “조선 인민군 창건 3주년 기념 평양시 경축 대회에서 진술한 박헌영 동지의 보고,” 『근로자』, 제2호(1951).
- 승민,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남조선반동파의 최후발악,” 『근로자』, 제11호(1949).
- “『유마니테』 신문 기자 마니앙씨의 질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 성 장군의 대답,” 『근로자』, 제14호(1950).
- 장순명, “조선 인민들의 조국 통일과 자유와 민주를 위한 정의의 전쟁,” 『근로자』, 제12호(1950).
- “조선 인민군 창건 3주년 기념에 제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구호,” 『근로자』, 제2호(1951).
-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서,”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 한설야, “한설야씨의 보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 _____,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세계 민주力量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근로자』, 제14호(1950).
- “현단계에 있어서 대중정치사업의 강화,” 『근로자』, 제2호(1951).
- 한효, “자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의 조선문학(1),” 『문화예술』, 1월호(1953).

3) 신문

- 『로동신문』, 1949년 6월 17일; 1949년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949년 10월 8일; 1950년 2월 21일; 1950년 6월 24일; 1950년 7월 5일; 1950년 7월 14일; 1950년 7월 21일; 1950년 8월 11일; 1950년 9월 19일; 1950년 9월 20일; 1951년 3월 4일; 1951년 3월 20일; 1951년 4월 27일; 1951년 10월 10일; 1951년 11월 11일; 1952년 5월 25일; 1952년 7월 31일; 1952년 10월 6일; 1953년 1월 26일; 1958년 8월 17일; 1960년 8월 24일.
- 『천리마』, 9월호(2011).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김연수, 『일곱 해의 마지막』(파주: 문학동네, 2020).
- 김태우, 『폭격: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파주: 창비, 2013).
- 박태균, 『한국전쟁』(서울: 책과함께, 2005).
- 슈미트, 칼(C. Schmitt), 『파르티잔』, 김효전 옮김(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8).
- 양영조 외, 『6·25전쟁사』(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5).
- 장세진, 『슬픈 아시아: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1945~1966)』(서울: 푸른역사, 2012).
- 정명환 외,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서울: 민음사, 2004).

2) 논문

- 고자연, “한설야의 제3세계 인식: 1950년대 중·후반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55호(2019), 51~94쪽.
- _____, “해방 후 한설야 문학 연구”(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2014), 197~250쪽.
- _____, “한반도 평화체제 만들기의 국제정치적 기원: 북한자료를 통해서 본 정전협정 4조 60항의 합의과정,” 『한국과 국제정치』, 제37권 2호(2021), 253~285쪽.
- 권현익, “제3세계 운동의 기원으로서 한국전쟁: 버마의 우 누의 중립주의를 연결고리로,” 『역사비평』, 제138호(2022), 224~250쪽.
-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태경·이우영·구갑우, “1950년대 북한의 두 ‘평화의 마음,’” 『통일과 평화』, 제11집 1호(2019), 157~191쪽.
- 노경덕, “스탈린 외교를 바라보는 한 시각, 1927~1953,” 『역사비평』, 제121호(2017), 372~400쪽.
- 박동찬,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한국전쟁 인식과 대응,” 『군사』, 제79호

- (2011), 111~149쪽.
- 신선옥, “1950~60년대 중국 문단에 소개된 한설야와 그의 문학평론 연구,” 『어문론집』, 제83호(2020), 291~312쪽.
- 심헌용, “주북한 소련 군사고문단 연구,” 『동북아연구』, 제29권 2호(2014), 261~289쪽.
- 오택호, “분단 시대를 사를 모닥불의 상상력, 1950~60년대 백석 시인의 내면 풍경: 김연수의 『일곱 해의 마지막』론,” 『민족화해』, 제108호(2021), 64~67쪽.
- 옥창준, “냉전기 북한의 상상 지리와 ‘평양 선언,’” 『통일과 평화』, 제12집 1호(2020), 5~45쪽.
- 이선우, “한국전쟁기 거제도수용소 내 ‘친공포로’의 딜레마와 폭동,” 『역사문제연구』, 제21권 2호(2017), 317~356쪽.
- 전예목, “6·25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내막,” 『군사』, 제120호(2021), 1~42쪽.
- 정영환, “1947년 아시아관계회의와 재일아시아민족회의,” 『역사비평』, 제138호(2022), 251~278쪽.
- 정용욱, “6·25 전쟁: 1950년대 후반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와 현실』, 제91호(2014), 285~315쪽.
- 조근, “한설야 『열풍』의 등장인물과 실존모델,” 『서강인문논총』, 제54집(2019), 77~104쪽.
- 조성훈, “미국 자료를 통해 본 휴전 협상의 지연 요인 연구: 포로 문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3권 2호(2000), 49~70쪽.

3. 국외 자료

1) 단행본

Katzenstein, P. and R. Keohane(eds.), *Anti-Americanism in World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6).

Wittner, L. *One World or None: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Through 1953*(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2) 논문

- Crowther, J. G. "The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s," *Nature*, 160 (1947), pp.628~629.
- Kára, K. "On the Marxist Theory of War and Peace,"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5, No.1(1968), pp.1~27.
- Koo, Kab Woo. "The Discursive Origins of Anti-Americanism in the Two Koreas," *Asian Perspective*, Vol.42(2017), pp.291~308.
- McLachlan, D. "The Partisans of Peace," *International Affairs*, Vol.27, No.1 (1951), pp.10~17.
- Soviet News, "Resolution adopted by the Partisans of Peace in Warsaw, November 1950," in M. Carlyle(ed.), *Documents on International Affairs 1949-1950*(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 Zhdanov, A. "The 'Cold War' and the Cominform," in Daniels, R.(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I(New York: Random House, 1960).

3) 기타 자료

- "Shining the Light on Paul Robeson's Activism Against the Korean War," Rutgers Global, February 20, 2020(검색일: 2023년 7월 29일).
- Truman, Harry S., "Statement by President Truman in Response to First Soviet Nuclear Test," Wilsoncenter.org, <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statement-president-truman-response-first-soviet-nuclear-test>(검색일: 2023년 7월 10일).
- _____.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the Decision To Withdraw U.S. Forces From Korea, 1947-1949,"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October 27, 1952, <https://www.presidency.ucsb.edu/documents/statement-the-president-the-decision-withdraw-us-forces-from-korea-1947-1949> (검색일: 2023년 6월 22일).
- W. E. B. Du Bois Papers (MS 312) Special Collections and University Archiv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Libraries, <https://credo.library.umass.edu/view/full/mums312-b126-i237>(검색일: 2023년 8월 8일).

“World Congress of the Peace Partisans,” THE MET, <https://www.metmuseum.org/art/collection/search/369933>(검색일: 2023년 7월 10일).

“World Peace Council Collected Records,” TriCollege Libraries, https://archives.tricolib.brynmawr.edu/resources/scpc-cdg-b-finland-world_peace_council(검색일: 2023년 8월 8일).

North Korean Novelist Han Sul Ya's Concept of Peace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Koo, Kab Woo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the peace discourse of novelist Han Sul Ya, who during the Korean War participated as one of the North Korean delegates in the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in favor of the Soviet Union in 1949. On the eve of the Korean War, Han equate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Although Han used the rhetoric of peaceful reunification, he did not exclude violent methods as a path to peace. Immediately after North Korea invaded South Korea, North Korea defined the Korean War as a civil war and mobilized the discourses of 'just war' and 'national liberation war'. While Han Sul Ya faithfully adopted the North Korean definition of the Korean War, he organized his peace discourse into both anti-American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discourses. The anti-American discourse was a radical anti-Americanism that demonized the United States and its military as "cannibals." In his international solidarity discourse, he initially sought to justify the Korean War in

North Korean terms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but when the Korean War reached a stalemate, he temporarily showed an absolute pacifist attitude, demanding an immediate end to the war.

Keywords: North Korea, Han Sul Ya, Korean War, peace discourse,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World Peace Council, anti-American discourse, international solidarity discourse